

전남 사립고 24개 폐교 유도

도교육청, 공립 일반계高 80곳도 37개로 통폐합 추진

전남도교육청이 최대 협안인 거점 고등학교 육성사업을 장기적으로 사립고까지 확대 추진한다.

연차별로 현재 47개 사립형 고교를 23곳으로 줄여 이 학교들을 거점고로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현재 80곳인 공립 일반계 고교를 37개 학교로 통·폐합하는 거점고 육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12 전남교육 뉴 비전'을 밝혔다. 이는 공·사립 고교를 가리지 않고 학생수 감소가 심각해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만도 신입생을 10명도 채우지 못한 공립 고교가 속출함에 따라 전남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여론도 감안됐다.

'인구 6만명' 광주 북구 건국동 분동

북구청 주민센터 하반기 신축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광주시 북구 건국동이 분동된다.

지난 31일 북구청에 따르면 행정수요 증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국동에 대한 분동을 하반기 실시할 방침이다. 분동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72억여원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건국동 분동 주민센터를 양산동(법정동) 1019번지 990㎡ 면적(지상 3층 이내)에 신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2만여 세대에 6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국동은 양산

도교육청은 거점고교를 축으로 인근 학교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안을 택하되, 거점고교에 기숙사 신축 등 각종 교육인프라를 갖추도록 집중 지원하고 교원들에게도 과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사립고교의 경우 사립 학교법에 따라 학교의 존폐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 적정규모 학급을 유지할 수 없는 고교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립고교에 대한 거점고 육성사업은 이미 본궤도에 올라 있다.

도교육청은 목포와 여수, 순천 등 평준화 지역을 제외한 도내 19개 농어촌 지역 공립고등학교 80곳 가운데 37곳을 거점 고교로 지정, 집중 육성 기로하고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열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5급 이상 우수공무원 선정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지구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신규 설치 등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또 도시, 농촌, 첨단단지, 공단 지역 등 복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건국동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편입에 정지로 발전기대 지역이기도 하다.

건국동 전체면적은 34.15km²이며, 이는 석곡동에 이어 북구에서 가장 넓은 크기이다. 건국동은 연제동, 양산동 등 16개의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26곳, 초등학교 8개, 중학교 3개, 고교 2개, 종합대학 2개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광주교육청노조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과 화합, 소통하고 신뢰 받는 광주교육을 위해 올바른 공직자를 선정해 표창하기로 했다. 선정인원은 팀장급 사무관 3명,과장급 서기관 1명이다.

1월부터 15일까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과 책임감, 리더십과 조직문화, 창의성과 대안제시 능력 등 설문조사를 거쳐 뽑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산구청 고마워요!

가족관계등 조사 탈락위기 기초수급 858세대 구제

광주시 광산구청이 지난 31일 "4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복지 대상자 3291세대에 대한 확인조사를 추진, 탈락위기에 놓인 기초생활수급 858세대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기초생활수급세대 확인 조사 과정에서 가족관계 단절 등에 따라 어울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족 관계 서류, 소득 등 단순 데이터만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탈락 위기의 수급자를 구제했다.

1차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1차 조사결과 562세대 급여 중지, 1931세대 급여 감소, 243세대 자격 변동 등 전체 기초수급 3291 세대의 약 71%가 변동 대상이 됐다.

이에 광산구 직원 11명이 현장

방문을 통해 급여 중지 451세대, 급여 감소 239세대, 자격 변동 168세대가 등 모두 858세대를 기준 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신규 기초수급세대도 기준 555세대에서 755세대로 늘어났다.

광산구는 불가피하게 지원에 서제외되거나 축소된 세대는 민관공동복지망 '부처데 광산'에 의해 뇌해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마련 등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충부취재본부 기원태기자 wtkee@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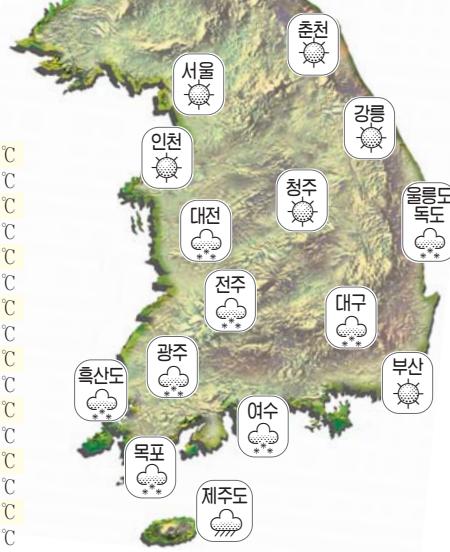
해물 07시 32분 해진 18시 00분

달률 12시 07분 달진 01시 42분

추위요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아 춥겠다.

광 주	흐리고 기온높	-5/-1°C
목 포	흐리고 한때눈	-3/-1°C
여 수	구름많고한때눈	-2/-1°C
나 주	흐리고 가끔눈	-5/-1°C
완 원	구름많고한때눈	-2/0°C
구 전	구름많고한때눈	-4/-1°C
강 전	구름많고한때눈	-3/0°C
해 남	구름많고한때눈	-3/0°C
장 풍	구름많고한때눈	-3/0°C
순 천	구름많고한때눈	-3/0°C
영 광	구름많고한때눈	-5/-3°C
진 도	구름많고한때눈	-1/0°C
전 천	구름많고한때눈	-6/-2°C
군 산	구름많고한때눈	-7/-4°C
남 원	구름많고한때눈	-7/-3°C
흑 산	흐리고한때눈	-1/-1°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출증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서~북	2.0~4.0m	보통	밀물	썰물
만비다	북서~북	2.0~4.0m	보통	밀물	00:43	00:43

〈오후〉	비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출증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서~북	2.0~4.0m	목포	20:00	13:54
만비다	북서~북	2.0~4.0m	여수	03:07	08:47	14:33

◇주간날씨

날짜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씨	최저/최고 -8/-3	-4/-2	-3/-4	-1/-5	1/4	-3/0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전남 사랑의 온도 100.3도 '펄펄'

을 모금액 58억 돌파...13년 연속 목표 달성

전남 도민들의 뜨거운 나눔 속에 사랑의 온도가 100.3도까지 올라갔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31일 희망2012나눔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액 58억원을 살짝 넘은 58억16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 1998년 설립이래 13년 연속 목표 달성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빠른 후 폐지를 수거해 모든 돈을 기탁하거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는 단

체에서 작은 정성을 모아 기부활동에 참여하기도 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캠페인 기간 마지막 주말인 29일 온도가 96.5도에 그쳐 100도 달성을 대한 우려도 나았으나 농어촌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 수십 만원씩 쌀짓돈을 기부해 수은주를 올렸다.

광주에서는 이미 지난달 29일 목표액 22억원을 넘어선 22억 3600만원이 모인 바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수십년 관행 깨고 소통 중심

북구청 '딱딱한 직원 정례조회' 없앤다

법을 거쳐 '정례조회'라는 이름을 '열린 만남의 날'로 바꿨다. 또한 단체장 훈시 위주의 조회 내용도 직원들이 공감하도록 내실 있게 전면 바꾸기로 했다.

'열린 만남의 날'은 주민 및 공무원 표창, 구정 성과와 계획보고, 현장 체험사례 발표, 예술영화 상영, 명사 초청 강연, 문화예술 공연, 자유발언대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900여 구청 직원들의 의견수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젠 톤 -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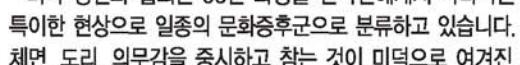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죽이 상해하고 병까지 염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낚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이루어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한의원 전 선 형 원장

SINCE 1982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과목

진료과목

진료과목